



|   |  |                  |  |   |
|---|--|------------------|--|---|
| <br><b>인천광역시</b> |  | <b>보 도 자 료</b>   |  | <br><b>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b> |
|   |  | 배포일자             | 2022년 9월 17일(토)<br>총 3매  |   |
| 담당 부서<br>국제평화협력<br>담당관실   | 담 당 자  | • 아시아팀장<br>• 담당자 | 명 창 준 ☎440-3201<br>이 다 혜 ☎440-3205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유정복 시장, 싱가포르에서 ‘초일류도시 인천’ 구체화 시동**  
 - 현지 한국 기업인 간담회 갖고 우수 사례·정책 및 의견 청취 -  
 - 클락키 강변,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시찰하면서 공약 구체화에 접목 -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월 16일 싱가포르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항공,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관계자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 집적 사례와 세계 금융허브 역할과 관련한 우수 정책을 파악하고, 특히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른 다국적기업 동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고국 땅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신 주재원과 가족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린다”며,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뉴 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 등을 완성해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이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이번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유 시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을 방문해 현지 무역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과 관련해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클락키 강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등을 차례로 시찰했다.

한편, 인천시가 추진하는 초일류도시란 국내외 일류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서 5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초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문화, 역사,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행복도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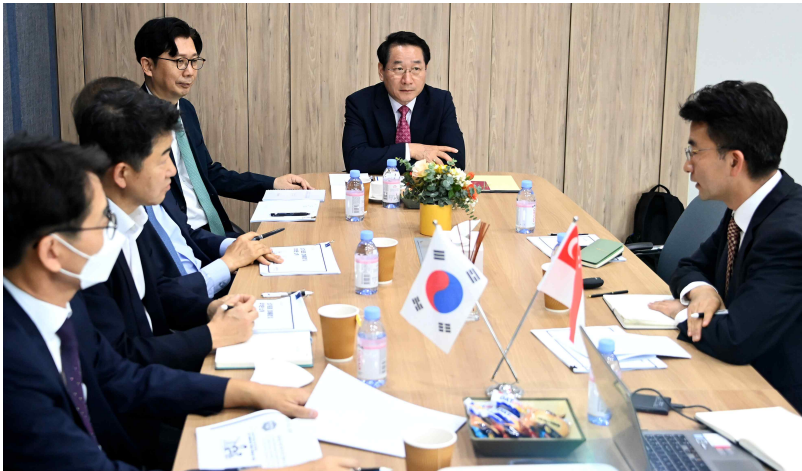
핵심사업인 ‘뉴 홍콩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앞으로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해 나아가는데 큰 축이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유 시장은 17일 두 번째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로 향했다.

<관련사진>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6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도시계획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6일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해 현지 경제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